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 수행성 이론: 기독교적 응답



이제는 유명해진 2015년의 베네티 페어 기사에서 한때 남자 육상 스타였던 브루스 제너(Bruce Jenner)가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한 케이틀린 제너(Caitlyn Jenner)로 공개된 이후, 인간 젠더의 본질을 재정의하려는 빠르고 강력한 운동이 미국의 거의 모든 영향력 있는 기관에 침투했다. (1) 언론과 공교육에서부터 소셜 미디어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중은 인간의 문화적 경험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구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사방에서 들어 왔다. (2)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인해 혼란이나 고통을 겪는 남성들을 가리키는 성별 불쾌감에 관한 논의에서, 젠더는 어떤 객관적 의미에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젠더라고도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공적 담론이 옮겨 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더 나아가 모든 시민에게는 사람들이 선택한 대명사로 그들을 불러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젠더 정체성이 주관적인 사회적 결정의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많은 사람은 이처럼 급진적인 주장이 어떻게 서구 사회의 수많은 영역에서 그토록 빠르게 받아들여졌는지 의아하게 여겼다. 공적 담론은 매우 빠르게 변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상당 부분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 온 사상과 운동의 결과이다. 19세기 페미니즘의 시작, 피임약과 그 밖의 생식 기술이 가져온 성관계와 출산의 분리, 결혼의 쇠퇴를 비롯한 수많은 요인이 여기에 작용한다. (3) 이 문제와 관련된 오늘날의 문화적 풍토에 관여해 온 학자와 활동가들 가운데 주디스 버틀러만큼 중요한 이름은 아마 없을 것이다.

활동가이자 비교문화와 철학 교수이며 널리 읽히는 저술가인 버틀러는 다양한 학문 분야와 활동가 단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수많은 저술(책과 논문 모두)을 통해 LGBTQ 연구, 지정학적 사건, 미국의 공공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그녀가 가장 널리 알려진 사상은 젠더 수행성으로, 버틀러는 젠더 차이가 일련의 의례적 행위와 역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으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4)

이 글은 버틀러가 주로 1990년에 출간한 영향력 있는 저서 젠더 트러블(5)에서 제시한 기본 논지를 설명하고, 그녀의 주장에 기독교적으로 응답한다. 버틀러가 그 책에서 처음 제시한 사상을 계속 발전시키고 확장했기 때문에, 초기 저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후기 저작들도 참고한다. 방대한 글을 쓴 사상가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매우 많으므로, 이 글은 범위 면에서 포괄적이지도 않고 포괄적일 수도 없다. 이 글은 젠더가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수행적이고 가변적이라는 버틀러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에 초점을 맞춘다.

이전 페미니즘과의 차이

페미니즘의 여러 물결은 그 자체로 상당히 광범위하지만(각 물결 안에 다양한 견해와 사상가들을 포함한다), 각 물결에 속한 여러 사상가가 대체로 동의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사상이 있다. 버틀러는 제2물결 페미니즘 저술가들이 제시한 가장 근본적인 논점 가운데 일부를 바꾸며, 그로써 젠더와 생물학적 성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개념에서 유동적으로 보는 개념으로 이동한다.

영향력 있는 제2물결 페미니스트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자주 인용되는 자신의 저서 제2의 성에서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다. (6) 현대의 독자들은 이 말을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의 객관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흔히 오해하지만, 보부아르는 이 인용문에서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여성다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가리고 있었다. 제2물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과 여성다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구분한다. 전자는 주관적이지도 변하지도 않지만, 후자는 그러하다.

보부아르에 따르면, 문제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여성다움에 대한 기대가 모두 부정적인 정체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2의 성”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여성은 “타자” – 남성이 아닌 존재 – 로 규정된다. 다시 말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보편적 인간성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규정한다. 이는 예를 들어 기독교가 하나님을 남성으로 묘사하는 방식에 반영되어 있다. (7) 보부아르에 따르면, 기독교는 어린 소녀들에게 신적 권위와 인간적 권위가 모두 필연적으로 남성이 라고 가르친다. 이는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며, 여성의 정신은 자신을 열등하고 공적 생활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도록 사회적으로 길들여진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화에는 삶의 여러 단계에서 여성에게 가르치는 수많은 의례와 사상이 포함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서구 사회는 남성의 패권을 강화하며, 그로써 여성에게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가 더 낮다는 점을 끊임없이 일깨운다. 보부아르에게 여성 해방은 여성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가 부과한 문화적 기대에서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을 분리하는 데 주로 있다. (8) 다시 말해, 제2물결 페미니스트들에게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힘과 권위와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인위적으로 강요된 젠더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버틀러가 자신의 체계에서 뒤엎는 보부아르 사상의 근저에는 바로 생물학적 성과 젠더 수행의 이러한 근본적 구분이 있다. (9) 버틀러에게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기대 아래에 존재하는 본질적 젠더란 전혀 없는데, 젠더는 사회적 의례에 기초한 수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본질이나 생물학적 성을 여성다움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존재에 실제로 내재한 무언가가 있다는 관념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서 해방을 위한 노력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젠더라는 구성물 자체를 전면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다. 현대 젠더 이론의 많은 부분이 이 문제에 대한 버틀러의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10)

인간이란 무엇인가?

버틀러의 젠더 구성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특정한 접근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버틀러는 자신이 “실체의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주 비판한다. (11) 이러한 본질주의적 틀에서는 인간을 구성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본질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보편적인 속성(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과 특수한 속성(개인과 집단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보편적인 인간성을 공유하지만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특수한 속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12)

고전적 기독교의 인격 개념에서는 바로 이른바 실체의 형이상학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다. 기독교 전통 전반에 걸쳐, 인류에게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보편적인 본질이 있다는

데 폭넓은 합의가 존재한다. 한 가지 예로, 루터교 신학자 다비드 홀라츠(David Hollaz)는 인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간은 이성적 영혼과 유기적 몸으로 이루어진 동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최초의 창조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그가 1) 창조주를 진실하게 예배하고, 2) 경건한 삶을 살며, 3) 영원한 행복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13)

기독교 사상에서 인간 본성의 이러한 본질적 통일성은 세 가지 중요한 이유에서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첫째,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고 할 수 있으려면 보편적인 인간의 본질이 존재해야 한다. 첫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담의 독특한 대표자적 지위를 가능하게 한다. 본성의 통일성이 없다면 죄의 보편적 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인류의 통일성이 각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립한다. 셋째, 통일된 인간의 본질이 존재할 때에만 영원하신 로고스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여 세상을 구속하실 수 있다.

그러나 버틀러에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성이라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다. 그녀는 정체성을 다루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며, 인간 주체에 관한 철학적 모델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것”을 주장한다. (14) 고전적인 서구의 관점에서 각 사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주체이다. 각 남성과 여성에게는 일생 동안(그리고 그 이후까지) 지속되는 실제적이고 일관되며 자기 동일한 정체성이 있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몸이나 사회적 환경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각 개인에게는 지속되는 영혼이 있다. (15) 사람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한 “자아”로 남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버틀러는 자아라는 관념이 단지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유지되는 이해 가능성의 규범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16) 다시 말해, “자아”는 세계가 우리에게 이해 가능한 것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하는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 버틀러는 미셸 아르(Michel Haar)를 인용하며 심리적 자아 – “자아, 개인, 인격체” – 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7) 이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차연(différance)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단어들은 그 자체를 넘어선 객관적 실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단어들을 가리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언어는 차이와 지연으로 이루어진 자기 지시적 체계로서, 인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일관된 패턴을 만들어 내지만 그 자체를 넘어선 어떤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진리에도 접근할 수 없다. (18) 따라서 “자아”에 관한 말은 경험을 언어적으로 분류하고 다른 단어들과 상호작용의 맥락을 구성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자아는 언어의 틀 바깥에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버틀러는 언어에 대한 이러한 후기구조주의적 접근 안에서, 인간 주체가 객관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면 젠더 역시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인간 주체가 실제로 어떤 본질적인 방식으로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젠더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지속되는 실체는 속성들을 일관된 젠더의 연쇄로 강제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만들어진 허구적 구성물이다.”(19) 여기서 버틀러의 주장은 인간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일련의 속성을 가져다가 어떤 일관된 질서 안에 배치

한 뒤, 이러한 속성 중 일부를 소유한 것을 남성인 것과 동일시하고 나머지를 소유한 것을 여성인 것과 동일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분류가 아니라 사회언어학적 분류에 불과하다. 버틀러에게 이러한 사회언어학적 명칭은 수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젠더 수행성

버틀러에게 행함은 곧 존재함이다. 버틀러가 주장하듯이 사람의 행동 뒤에 존재하는 일관된 주체가 없다면, 한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그 행동들이다. 그러므로 젠더는 “언제나 행위이지만, 그 행위보다 먼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주체가 행하는 행위는 아니다.”(20) 사회에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가 있다. 이것들은 담론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례를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담론적 상호작용에서 예를 들어 특정한 옷은 남성의 것이나 여성의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젠더에 따라 구분되는 여러 행동과 관심사 또는 행태가 존재한다. 젠더를 수행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은 이러한 의례가 반복적으로 수행될 때 사람이 그 사회적 역할에 해당하는 존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례를 통해 “여성”의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생물학적 또는 심리적 구성이 무엇이든 이제 여성이 된다. (21)

여기서 버틀러의 사상은 생물학적 신체의 구성과 충돌할 수 있는 어떤 선천적이고 내면적인 심리적 젠더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담론과 상당히 다르다. (22) 어떤 사람에게 여성의 몸과 맞지 않는 남성의 뇌나 내면의 심리적 자아가 존재한다는 믿음(또는 그 반대의 경우)은 어느 정도 여전히 실체의 형이상학에 해당한다. 이는 뇌가 참여하는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어떤 근본적이고 통일된 관념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버틀러에게는 남성의 뇌나 여성의 뇌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남성의 몸이나 여성의 몸도 없다. 버틀러에게 여성이라는 존재에 생물학적 토대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생물학은 운명이 아니라는 페미니즘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23) 젠더 정체성과 관련하여 버틀러는 “젠더 표현들 뒤에는 젠더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정체성은 그 결과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표현들’에 의해 수행적으로 구성된다”라고 주장한다. (24) 버틀러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 창조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한계를 부과하는 대신, 모든 언어적·사회적 범주의 구성된 성격은 인간이 생물학과 운명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정반대이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는 추상적인 인간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존재한다. (25) “젠더 이분법”은 신학적 인간론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에덴동산에서 인간이 처음 설명되는 바로 그 방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남자로 창조하셨고 하와를 여자로 창조하셨다(창세기 1:27). 이러한 구분은 신정 체제 아래의 모세 율법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서로 다른 법들(레위기 18장)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둘러싼 바울의 논의(고린도전서 11:1 - 16), 그리고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된 비유에 이르기까지 성경 이야기 전체에 나타난다:

여호와와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의 남편이시다(에베소서 5:25). 젠더를 지닌 피조된 존재 방식 안에서(그 밖의 다른 존재 방식은 없다), 인간은 자신의 몸에 매여 있는데, 그 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두신 한계이기 때문이다.

한계는 인간의 본성에 필수적이다. 의롭게 창조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복을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이라는 동산 - 성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주어졌다. 그들은 땅의 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창세기 3:3). 이 나무는 아담과 하와(따라서 인류 전체)의 유한성과 본질적인 한계를 일깨워 주는 표지였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사탄이 하와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하며 가져온 유혹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려는 것이었다(창세기 3:5). 한계를 부인하고 자아와 피조 질서를 지배하려는 욕망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젠더가 생물학적 실재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념은 인간의 유한성을 육신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헛된 시도이다.

수행적 발화 행위(The Performative Speech-Act)

버틀러의 철학적 접근과 스스로 신앙고백적임을 분명히 하는 기독교적 접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버틀러의 체계와 루터교 신학자 로버트 콜브(Robert Kolb) (26) 및 개혁과 저술가 마이클 호턴(Michael Horton) (27) 같은 일부 현대 기독교 사상가들의 신학 저술 모두에 공통으로 영향을 준 인물이 있는데, 바로 존 L. 오스틴(John L. Austin)이다. 오스틴은 1962년 저서 『말과 행위』에서 언어가 실재를 묘사할 뿐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 내는 힘도 있다고 주장했다. (28) 20세기의 전반적인 언어적 전환에 속하는 이러한 사상은 이념적으로 다양한 체계에 수용되었으며,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버틀러와 신앙고백적 신학 모두에서 오스틴의 사상이 미친 영향을 설명하면 이 체계들 사이의 주요 차이점 가운데 일부가 분명해진다.

오스틴 논지의 핵심은 언어가 언제나 단순히 묘사적인 것만은 아니며 수행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우리 말의 많은 부분은 “진술적”인데, 이는 실제로 그러한 것을 진술하는 데 사용된다는 뜻이다(예: “나는 집을 흰색으로 칠했다”). 그러나 다른 언어는 효력을 발휘하는, 곧 수행적인 언어이다. 여기서 “수행적”이라는 용어는 무언가를 묘사할 뿐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내는 발화를 가리킨다. 오스틴이 든 주된 예는 약속이다. 내가 친구에게 약속하면 나와 약속을 맺은 사람 사이에 유대와 의무가 생긴다. 또 다른 흔한 예는 결혼이다. 결혼식에서 하는 서약은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만들어 낸다. 더 나아가 예식을 주례하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남편과 아내라고 선언하면 그 결혼이 실제로 성립된다. 발화된 말을 통해 남자와 여자는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된다. 세 번째 예는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무죄 또는 유죄라는 판사의 선언은 법적 상황에서 실제로 무죄나 유죄를 확정한다.

버틀러는 여기서 오스틴의 사상을 활용하지만, 영국 철학자였던 오스틴과는 상당히 다른 맥락에 그것을 적용한다. (29) 오스틴에게 발화 행위는 일종의 수행이다. 이러한 수행적 발화는 앞서 언급한 계약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실재를 만들어 낸다. 버틀러는 젠더도 이러한 발화 행위처럼 수행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계약이 발화 행위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유대인 것처럼, 젠더도 의례적 행위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범주이다. 그러나 버틀러에게 젠더는 단순한 말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단 한 번의 상황에서 단순히 “나는 여성이다”라고 선언하는 것보다 여성이라는 존재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30)

오스틴은 발화 행위를 발화, 발화수반, 발화효과라는 세 요소로 구분한다. 첫 번째인 발화는 말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결혼식의 예에서는 “맹세합니다.”라는 말이 이에 해당한다. 발화수반은 인정된 사회적 맥락 안에서 발화된 말에 담긴 의도된 의미와 효력을 가리킨다. 아무 상황에서나 단순히 “맹세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혼인의 유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발화 행위는 적절한 말을 하면 저절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마법 주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버틀러에게 자신이 남자나 여자 또는 다른 무엇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젠더에 관해 이해된 사회 구조 및 맥락과 더불어 화자의 의도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젠더의 경우 이는 사회 안에서 그 젠더를 나타내는 반복적인 의례 행위를 뜻한다. 발화 행위의 세 번째 요소인 발화효과는 그 행위가 낳는 효과를 가리킨다. 혼인 서약의 발화효과는 그 부부가 이제 사회에서 혼인한 사람들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에서 발화효과는 젠더화된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그 특정 젠더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오스틴을 인용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은 여기서 버틀러가 사용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그의 사상을 사용한다. 신학 영역에서 오스틴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은 주로 루터교 신학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는데, 오스발트 바이어(Oswald Bayer) 같은 저술가들은 오스틴의 수행적 발화 행위와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31)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루터의 이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 동의를 얻기 위한 일련의 교리로서 신적 진리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오스틴의 진술적 발화와 비교할 수 있다), 세상 안에 실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32) 이러한 사상의 뿌리는 창세기 첫 장에 있는데, 그곳에서 독자는 “빛이 있으라”(창세기 1:3)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수행성은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그가 죽음에서 살아난 일(요한복음 11:43)과 같은 다른 많은 곳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들과 그 밖의 사례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묘사적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이다.

그렇다면 언어학으로의 이러한 전환은 어떤 의미에서 철학의 상당히 기독교적인 전환이다.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이다. 창조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창세기 1:3).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

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디모데후서 3:16). 설교와 말씀 낭독은 기독교인의 모임과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이다(디모데후서 4:2). 성자 하나님 자신도 “말씀”이라고 불리신다(요한복음 1:1). 더 나아가 교회에는 소리 내어 말하는 발화와 함께 수행적 의식이 있다. 교회의 성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의례이다. 세례에서는 세례받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뿐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과 교회 사이에도 새로운 실재가 형성된다. 그러나 기독교의 수행적 행위 개념과 버틀러의 개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형이상학적 실재론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현세의 사회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혼인은 단순히 동의하는 두 개인 사이의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이다. (33) 결혼식을 주례하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라고 선언할 때, 말씀하시는 분의 말을 통해 이를 확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례 예식문과 성찬 제정의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모두 단순한 사회적 의례가 아니라 인간 주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점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이다. 판사가 유죄나 무죄를 선언할 때 판사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행적 발화를 통해 어떤 실재가 생겨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신 행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공적 생활과 관련된 특정 영역에 대한 권한을 국가에 주셨고, 다른 영역에 대한 권한은 가정에 주셨으며,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의식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새 생명을 주는 권한은 교회에 주셨다.

인간의 제도에는 성의 본질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요소를 바꿀 권한이 위임된 적이 없으며 지금도 없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은 하나님의 질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 있는 선언을 약화시킨다. 버틀러는 형이상학적 실재론을 부인하면서 사회 질서 아래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존재하는 것은 사회 질서뿐이다. 이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인간을 구속하는 경계나 한계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자신의 형상대로 실재를 창조할 수 있다. 기독교와 버틀러식 수행적 젠더 이론보다 더 정반대되는 두 이념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버틀러의 저술은 일반적인 기독교인에게는 다소 난해해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그다지 중요하게 염려할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저술은 학문적 엄밀성이나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실제로 가치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우리 교회 안의 젊은이들의 견해에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의 사상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 비록 그들 대부분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이름을 실제로 들어 본 적은 없더라도 말이다. 1990년대 초 학계의 급진적인 주변 요소로 여겨졌

던 것이 30년 만에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받아들여지는 규범이 되었다. 우리가 더 일찍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교회가 이러한 흐름을 늦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미 지나간 일이 달라질 수 있었을지를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이 지지하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이념을 인정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 친절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위해, 일부 사람들은 실제 성별과 관계없이 개인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기독교인이 사용해야 한다는 소위 “대명사 환대”를 주장해 왔다. (34) 이것은 젠더에 관한 버틀러의 견해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구분에 대한 이러한 후기 구조주의적 공격의 전제 전체는 기독교의 가부장적 패권에 저항하는 행위로서 말을 사용하는 데 기초한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 성별을 반영하지 않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젠더 문제가 실제로 개인적 선호와 사회적 구성의 문제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따라서 기독교 서구 사회에 대한 저항에 가담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사람들이 이른바 젠더 이분법을 넘어 xe/xem/zir 또는 it/its/itself 같은 호칭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신 대명사”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데, 이러한 대명사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젠더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재와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의 한계에 맞서 인간의 권위를 인정하며, 기독교 서구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바로 그 반기독교적 이념과 한편이 되고, 정직하지 않게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둘 것은, 자신의 생물학적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젠더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명예롭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라고 거듭 명한다. 그러나 이를 진리를 희생하면서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부르심(사랑과 진리를 모두 지닌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기독교인은 가능한 한 충실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말할 때 대명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을 “그녀”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을 큰 소리로 단호하게 “그”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 논쟁을 피하고 불필요하게 모욕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은 그 결과가 무엇이든 이 문제에서 확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무엇이 걸려 있는가

주디스 버틀러는 학계와 더 넓은 문화권에서 받아들여지는 사상 모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알아 두어야 할 사상가이다. 현재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의 이념적 토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인들은 그 문제들을 뿌리에서부터 논의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다. 현재의 문제들이 지닌 핵심 이념을 다루지 않고 사안별로만 대응하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의견이 갈리는 핵심 지점을 파악하지 못해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거나, 잘못된 토

대에서 나온 사상의 뿌리를 알아보지 못해 그것을 순진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버틀러의 영향이 나타날 때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버틀러와 그와 비슷한 사상가들의 사상을 분석하고 핵심을 추려 내야 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버틀러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매우 분명하다. 버틀러는 인간의 본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규정하며 제한하는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는 초월적 질서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따라서 본질적인 인간의 본성이 없다면 인간이 자신에 관해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존재가 되려고 시도할 수 있는지에 아무런 한계도 없다. 인간을 생물학적 또는 신학적 제약에서 해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남자와 여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것은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도, 영원한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는 무한하신 분-영원한 로고스-께서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를 친히 취하셨으며, 그 한계를 통해 남자와 여자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질서 안으로 이끄셨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체성이나 젠더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에 관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갈등은 일시적일 뿐이며, 장차 올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한다.

조던 B. 쿠퍼(Jordan B. Cooper)는 저스트 앤 시너의 상임이사이자 미국 루터교 신학교 총장이며, 안수받은 루터교 목사이다. 현재 현대 세계를 형성한 철학자들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

NOTES

1. Buzz Bissinger, "Caitlyn Jenner: The Full Story," *Vanity Fair*, June 25, 2015. Another significant event in the bringing about of these conversations among the general public was the premiere of the reality television series *I Am Jazz* in the same year, which stars a child in the midst of gender transition.
2. The claim of the social universality of the gender binary has often been criticized on the basis of a third gender category of the "two-spirit" people in Native American societies. The term "two-spirit" is not a historic one, as it was only coined at the third annual international LGBT Native American Gathering in Winnipeg, Canada in 1990 as an umbrella term for native people who do not conform to strict Western gender norms. Much of the discussion here surrounds the "berdache," who were a group of men in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though not exclusively) that dressed like women and carried out women's duties. These men supposedly did not marry, and served the same role that eunuchs did in other societie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who take upon themselves the social roles of women, and a denial of any clear and objectiv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See Gregory D.

Smithers, "Cherokee 'Two Spirits': Gender, Ritual, and Spirituality in the Native South," *Early American Studie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2, 3 (2014): 626 - 51, <https://doi.org/10.1353/eam.2014.0023>; and Traci Ardren, "Studies of Gender in the Prehispanic Americas," *Journal of Archaeological Research* 16, 1 (2007): 1 - 35, <https://doi.org/10.1007/s10814-007-9016-9>.

3. Carl Trueman provides a helpful genealogy of some of these ideas in Carl R. Trueman, *The Rise and Triumph of the Modern Self: Cultural Amnesia, Expressive Individualism, and the Road to Sexual Revolution* (Wheaton, IL: Crossway, 2020).
4.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majority of the citations in this essay are from the earlier part of *Gender Trouble* (see note 5), which lays out this basic thesis. Other themes, such as her take on heteronormativity, patriarchy, and marginalization are not addressed directly in this essay, as they merit a fuller treatment on their own.
5.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1990).
6. Simone de Beauvoir, *The Second Sex* (London: Vintage Classics, 1949).
7. Beauvoir, *The Second Sex*, 303 - 304.
8. Terrell Carver writes, "This commonplace, considered by many to be foundational to modern feminism, was the sex-gender distinction: bodily sex is biologically given, whereas social behavior derived from it and thus corresponding to it — was malleable." Terrell Carver, "Judith Butler (1956 -)," in Alex Callinicos, Eustache Kouvélakis, and Lucia Pradella, *Routledge Handbook of Marxism and Post-Marxism* (New York: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2021), 439.
9. This foundational differentiation is now what is commonly described as the difference between "sex" as that which is biological, and "gender" as that which is either mental or social. The word "gender" has only recently become common, with John Money popularizing the term in the 1950s. It increased significantly in use in the 1980s but has been defined in completely different ways in both popular media and academic literature. For Money's treatment, see J. Money, J. G. Hampson, and J. L. Hampson, "Imprinting and the Establishment of Gender Role," *Archives of Neurology & Psychiatry* 77 (1957): 333 - 36. For a history of the modern use of the term "gender" and its difference from sex, see C. L. Muehlenhard, Z. D. Peterson, "Distinguishing between *Sex and Gender*: History, Current Conceptualizations, and Implications," *Sex Roles* 64 (2011): 791 - 803, <https://doi.org/10.1007/s11199-011-9932-5>.
10. Butler does, however, try to argue that her own approach to gender has some precedent in Beauvoir. She writes: "There is nothing in her account that guarantees that the 'one' who becomes a woman is necessarily female." Butler, *Gender Trouble*, 11.

11. This critique of the metaphysic of substance comes from Friedrich Nietzsche. A helpful article on Nietzsche's denial of the consistent subject is Galen Strawson's "Nietzsche's Metaphysics?," in *Nietzsche on Mind and Nature*, ed. Manuel Dries and P. J. E. Kail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2. Butler, *Gender Trouble*, 13 - 14.
13. Cited in Revere Franklin Weidner, *Anthropology, or the Doctrine of Man* (Chicago: Wartburg, 1912), 3.
14. Butler, *Gender Trouble*, 15.
15. For an overview and defense of the Christian concept of the soul, see J. P. Moreland, *The Soul: How We Know It's Real and Why It Matters* (Chicago: Moody Publishers, 2014).
16. Butler, *Gender Trouble*, 23.
17. Butler, *Gender Trouble*, 28.
18. For a longer discussion of Derrida, see Jordan Cooper, *In Defense of the True, the Good, and the Beautiful: On the Loss of Transcendence and the Decline of the West* (Ithaca, NY: Just and Sinner, 2020).
19. Butler, *Gender Trouble*, 33.
20. Butler, *Gender Trouble*, 34.
21. This is what stands behind the well-known interaction between documentarian Matt Walsh and Gender Studies professor Patrick Grzanka, wherein Grzanka defines a woman as "a person who identifies as a woman." There is no essence of "woman" behind the linguistic identifier. Therefore, there simply is no definition of woman. *What Is a Woman?* Documentary, directed by Justin Folk, edited by Jarrod Leesland, Nashville: The Daily Wire, 2022.
22. As one example: Lee Schubert, "Just a Woman with a Male Body," HuffPost, updated October 23, 2016, https://www.huffpost.com/entry/just-a-woman-with-a-male-body_b_580a1b9de4b0f8715789f938.
23. Butler, *Gender Trouble*, 41.
24. Butler, *Gender Trouble*, 34.
25. There is certainly a universal essence of humanity in which both men and women share, but this essence is always instantiated in individual gendered persons. As a parallel for this, think about the color red. While there is a universal idea that is "red," anything you can point to that is red is not the universal color *en abstracto*, but is a singular instantiation of red in a specific object that has particular attributes (the object is a certain shape, shade, texture, etc.).

26. Robert Kolb and Charles P. Arand, *The Genius of Luther's Theology: A Wittenberg Way of Thinking for the Contemporary Church*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27. Michael Horton, *The Christian Faith: A Systematic Theology for Pilgrims on the Wa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1).
28. J. L.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29. A good summary of Austin along with Butler's relationship to him can be found in: Stephen Young, "Judith Butler: Performativity," *Critical Legal Thinking*, November 14, 2016, <https://criticallegalthinking.com/2016/11/14/judith-butlers-performativity/>.
30. This criticism was leveled at Butler after the publication of *Gender Trouble*, and she has repeatedly corrected this misunderstanding, especially in her book, Judith Butler,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London: Routledge, 1993).
31. Oswald Bayer, Jeffrey G. Silcock, and Mark C. Mattes, *Theology the Lutheran Wa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 Co., 2007).
32. Kolb and Arand, *Genius of Luther's Theology*, 131 - 60.
33. Charles Taylor catalogs this move away from the divine order in the understanding of modern society in his masterwork,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Cambridge: Belknap Press, 2007).
34. "What Pronouns Should Christians Use for Transgender People?," *The Center for Faith, Sexuality and Gender*, June 16, 2018, <https://www.centerforfaith.com/blog/what-pronouns-should-christians-use-for-transgender-people>.